

평창올림픽 성화, 11월부터 2018km 달린다

내년 2월 9일 개회식까지 101일 동안 17개 시·도·강원도내 18개 시·군 전체 도는 대장정 돌입

내년 2월 9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점화될 성화가 오는 11월1일부터 2018km를 달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17일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김기홍 기획사무차장, 홍보대사 김연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화봉송 경로와 성화봉송 주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꺼지지 않는 올림픽 불꽃이 '현재나·어디서나·누구에게나' 꿈과 열정, 미래를 비추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모두의 잠재력을 비추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을 표현한 것이다.

슬로건의 '모두(Everyone)'는 한국 국민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과 동계올림픽을 즐기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빛나는 잠재력을 가진 아들을 의미한다.

평창올림픽 성화는 오는 10월24일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에서 채화돼 일주일 동안 그리스 전역을 돈 뒤 같은 달 31일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에서 평창대 표단에 전달된다.

대표단에 전달된 성화는 올림픽 개회 100일 전인 11월1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다.

성화는 101일 동안 17개 시·도와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도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일단 성화봉송 경로에서 북한은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조직위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대현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은 "IOC 규정상 국내에서 성화봉송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전 승인이 있으면 외국도 가능하고 북한도 가능하다"며 "조직위보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할 것 같다. 길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성화가 봉송되는 101일의 기간은 100이라는 완성된 숫자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를 담아 1일을 더한 것이다.

성화 봉송은 대회 핵심 목표인 문화(서울 경복궁), 환경(순천만국가정원), 평화(최북단), 경제(인천대교), ICT(대전) 등 5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테마에 따라 이색 봉송도 이뤄진다. 경북 공에서는 어가엔젤 봉송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강강술래 봉송이 펼쳐진다.

최북단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통해 성화가 옮겨지고 대전에서는 로봇이 성화를 봉송한다. 기간 중 이슈도 반영된다.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에는 봉화 산타마을에 도착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대구 제야의 종 타종사에서 성화가 밝혀진다. 내년 1월1일에는 포항 호미곶 해맞이 행사에 성화가 타오른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봉송 구간은 2018km다.

평창올림픽 성화는 경남 통영의 거북선과 전남 곡성의 증기기관차, 강원도 정선군의 짙어, 부산의 요트,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봉송된다.

제주 및 과학기술도시 대전에서는 로봇이 성화를 봉송하는 진경경도 펼쳐진다.

성화 봉송 기간 동안 매일 저녁 각 시·군 별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지역 축하 행사가 열린다.

2018km를 모두 달린 성과는 내년 2월 9일 개회식 당일 공개될 최종 성화봉송 주자와 함께 개회식장 성화대에 점화 17일간의 대장정을 환하게 비추는다.

조직위는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 공헌자 등은 국민을 이울 수 있는 인물을 봉송 주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성화 봉송 주주자는 총 7500명으로 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및 주자선발계획 언론설명회에서 홍보대사인 김연아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성되며 지원한 부주자 2018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조직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남북한 인구수 7500만명에 착안해 봉송 주자를 7500명으로 정했다.

성화봉송 주자는 유니폼 무상 제공, 성화봉 구매 권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조직위원장 명의의 참여 증서를 받게 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은 5000년 친밀한 역사가 깃든 대한민국 곳곳의 명소를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함께 동계스포츠를 향한 꿈과 열정에 새로운 불꽃을 지피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아는 "성화 봉송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6월에 진행된 성화 봉송 아이디어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성화 봉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알 수 있었다"며 "성화 봉송은 꿈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일생일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2006년 토리노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대회의 성화 주자로 참여한 김연아는 10월3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성화 인수식에 참여한다.

김연아는 "성화 봉송을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수식에 참여하는 것은 스포츠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 직원테니스회, 직장테니스대회 단체 우승

전북대학교 직원테니스회(회장 김유성)가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전주전주체력공원과 전북대 등지에서 열린 제28회 전북 직장 및 클럽 테니스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

모두 44개 직장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는 예선 조별 리그에서 전북지방노동청을 3대 0, 임실군청을 2대 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무난하게 예선을 통과했다. 김유성 실장(사범대 행정실)을 비롯해 이현세·김재호·박진성·유희웅·김대철·이영섭·이준섭 직원 등 8명이 출전한 전북대는 본선에서 행운의 부전승으로 16강을 차지하지 않고 8강에 안착했다.

8강에서 KT를 만난 전북대는 2대 0으로 4강에 올랐고, 준결승에서 전북도시가스를 만나 2대 1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전주페이퍼와 상대한 결승에서 전북대는 2대 1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며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 전북대는 사범대 김유성 실장이 최우수선수상을 받는 겹경사로 누렸다.

/정해은기자



스포츠 스타 김성한·박찬숙, 문재인 후보 지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 스타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17일 김성한 전 기아티거즈 총감독과 박찬숙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은 "침체된 체육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한 이들은 체육계 선배로서 후보들을 걱정했다.

김성한 전 감독은 "선수생활을 하면서 호남 팬들의 한뼉한 응원소리를 들었고, 야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 한을 해소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내가) 전북 군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신 팬들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찬숙 전 감독은 "사실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스포츠와 생각하지만 체육계가 너무 침체돼 있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여색했지만,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문재인 후보가 제일 체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 어둠 속에 있다"며 "이제는 선수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김영란법'에도 골프장은 호황

경영난 겪을 것이란 전망 있었으나 큰 타격 없어 영업이익률 지난해 12.1%로 2015년보다 0.8% 포인트 상승

지난해 국내 골프장은 입장료 환인에 따른 이용객수 증가로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265곳의 통합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2.1%로 2015년보다 0.8% 포인트 상

승했다.

134개 회원제 골프장(제주권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로 2015년(-0.5%)보다 1.2%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131개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9.2%로 2015년(28.5%)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큰 타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회원제 골프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빈 시간대를 회원들이 채우고 입장료의 대폭 할인으로 비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응답 이용객수가 20% 늘어났다.

입장료 환인에 따른 비회원들의 객단가가 낮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대중골프장들은 대중골프장수 증가(대중제 전환 24개소, 신규 개장 13개소)로 주변 골프장과의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비수기 시간대 입장료를 대폭 할인하고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회원제 골프장 134곳 중 절반인 72곳이 영업 적자를 기록해 2015년 70곳 보다 2곳 늘었다.

대중골프장은 131곳 중 10곳만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1곳에서

오려려 1곳이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률 상위 10곳의 경우 대중골프장은 영남골, 회원제 골프장은 수도권 골프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중골프장은 ▲히든밸리CC(충북 진천·27홀)가 57.3%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상록CC(경기 화성·27홀)이 57.1%로 2위 ▲엠스클럽CC(경북 의성·27홀)이 54.3%로 3위를 기록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산하 ▲88CC(경기 용인·36홀)가 38.2%로 1위를 했다. 88CC는 2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팔곡CC(대구·18홀)가 35.1%로 2위 ▲부곡CC(경남 창원·18홀)가 34.0%로 다음에 위치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